

영암군,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국 군 최초 '통합돌봄추진단' 신설 2024년 65세 이상 인구 29% 초고령화 주민 위기 사례 집중, 밀착 관리 목표 전남서비스원 합동 지역 실태조사 착수

영암군이 올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하고 지속적 관계 형성과 네트워크 돌봄 등을 골자로 한 '영암형 통합복지'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통합돌봄추진단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콘트를 타워로, '주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돌보는 복지 모델'을 제시·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 기준 영암군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은 29.9%로 초고령화 사회 기준 20%를 초과한 상태다. 1인 세대 비율도 54.1%로, 가족에 기반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달 출범한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을 통해 모

두가 돌봄이 필요한 시대에 지속적 관계와 신뢰 형성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개별 지원에서 자원·네트워크적 지원으로의 전환, 사전조사·사례회의를 통한 중복지원 예방 및 역할 분담적 서비스 제공, 일회적 만남에서 지속적 관계 형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먼저 돌봄정책팀은 돌봄 정책 기획, 사업조정, 법·제도 정비, 자원발굴 연계 등을, 통합사례팀은 주민 위기 사례 밀착 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각각 담당한다.

현재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군보건소, 복지관, 병의원 등 지역 복지자원들과 협력해 복지·보건·의료 등을 망라한 통합적·체계적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역 통합돌봄 정책 설계를 위해 전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어르신·장애인 등 700명을 표본으로 '지역 돌봄 수요 및 현황 진단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암군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통합돌봄 시

범사업 시행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재남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주민이 사는 곳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으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영암형 통합돌봄 체계를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장보고수산물 축제 콘텐츠 발굴 완도군, 2월7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대표 축제의 위상을 확립하고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25 완도 장보고수산물 축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장보고수산물축제의 정체성을 반영한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체험, 판매, 전시 아이디어 등으로 축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축제 연계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대중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시상 규모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총 125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은 오는 2월7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서류는 관광과 상품개발팀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현철 완도군 관광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장보고수산물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영암군, 귀농·귀촌 지원 신청 주택 구입 등 2월7일까지

영암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7일까지 접수한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주거환경 개선, 품목별 학습동아리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한다.

먼저 65세 이하의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에게는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의 용자를 지원한다.

귀농창업에는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에는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저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준다.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중 하나인 마더하우스 지원사업은 1955~1974년생 베이비부머 세대 귀향인의 단독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한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의 소규모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65세 이하에게 화장실, 부엌 등 소규모 주택 수리비를 뒷받침해 준다.

전입 10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에는 품목별 학습동아리 운영 경비를 지원해 전문성을 키우고 농촌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다.

초기 귀농 정착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귀농인에게 매월 30만원씩 3년간 정착금도 지급한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6~7)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귀농·귀촌인 지원으로 영암살이를 응원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목포시, 재정지원 일자리 모집 내달 3일부터 취업취약계층 대상

목포시가 2025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목포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3일부터 6일까지로,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64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자로, 실직·폐업한 자, 장애인 및 가족,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에게는 선발에 가점이 부여된다.

시는 선발된 350명을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유달산공원 탐방로 조성 관리 등 47개 사업에 배치해 오는 3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어려운 사회·경제 분위기를 헤쳐나가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음식점 소상공인 30만원 지급 목포시, 공공요금 부담 완화

목포시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원, 이를 통해 고정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오는 2월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군의 한 농가에서 아열대 과수 '탐진향'이 수확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만감류 재배를 도입해 현재 13농가에서 만감류를 재배 중이다.

강진군, 아열대 과수 '탐진향' 수확

강진군의 아열대 과수 브랜드 '탐진향'이 출하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탐진향'은 강진군에서 생산된 만감류인 '레드향', '황금향', '천혜향' 등을 통합한 공동 브랜드로, 맛과 풍미가 뛰어나 겨울철 대표 과일로 자리 잡고 있다.

만감류는 풍부한 과즙과 높은 당도, 강

렬한 향이 특징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일이다. 수확 시기가 설 명절과 맞물리면서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만감류 재배를 도입했으며 현재 13농가에서 4.2ha 규모로 재배 중이다.

강진군 제공

강진=김윤복 기자

영암군,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20~49세 남녀 대상

영암군이 올해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0~49세 남녀 모두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해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해당 제도를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사실혼·예비부부 등에게 1회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미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20~29세, 30~34세, 35~49세로 3주기로 나눠 주기별 1회씩 3회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2종 검사비를 1회당 13만원까지, 남

성에게는 정액검사비를 1회당 5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남녀는 보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 e보건소에서 신청하고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다음 지원을 받으면 된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임신의 준비 단계부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사업에 신청 바란다"며 "적절한 조기 검진 및 관리로 난임 예방,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